대한설비건설협회, 제34회 총회(정기) 개회사

시공관리능력 배양 및 시공품질 향상과 기술개발에 적극 매진해야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 박종학

오늘 우리 협회 제34회 정기총회를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건교부 정삼정 건설지원팀장님, 정승일 명예회장님, 홍평우 명예회장님, 이찬재 조합 이사장님, 그리고 대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국가경제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오던 우리 건설산업이 공공건설투자의 감소와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 억제정책으로 인한 주택경기의 침체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설비건설업계는 하도급공사금액의 추락으로 원가 이하의 저가수주를 강요받고 또한 감수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현실에 직면해 있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고자 정부에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원 · 하도급자 간의 상생방안을 마련하는 등, 건설산업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앞으로 건설경기가 점차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따라서 건설산업의 중요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도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함은 물론 창의적이고 개방적인 사고를 가지고 미래를 위한 전략을 세워 실천함으로써 건설산업 선진화 과정에서 뒤쳐지지 않도록 기업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대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전문과 일반건설업을 통합하여 겸업제한을 폐지하는 등 건설산업의 근본체계를 개편하고자 건설산업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는 이러한 정부 방침에 대응하여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시행 및 설비 · 전문건설업자 간의 공동도급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설비공사 분리발주 활성화로 원도급시장 참여를 보장받고, 시공참여자제도 개선 등으로 하도급시장을 보호하는 제도적인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협회는 전문건설업자가 원도급으로 시공할 수 있는 소규모 복합공사금액의 상향조정,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 비용의 공사원가 반영, 물가연동제 조정기준 변경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올 한해에도 우리 협회는 하도급자 산재발생시 산재 은폐를 강요하도록 하는 PQ신인도 제도를 개선하고, 불법하도급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건설하도급제도 개선, 그리고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자재가격과 노임단가 현실화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와 함께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확대를 위하여 분리발주된 기계설비공사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시공품질 향상을 유도하는 등, 발주기관의 분리발주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분리발주공사를 수주한 회원사는 원도급 업체로서의 성숙된 품위를 함양하는 한편 시공관리능력을 더욱 배양하고, 시공품질 향상과 기술개발에 적극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회원사의 편익 증대를 위해 인터넷 증명발급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정부 위탁업무를 신속 정확하게 수행하여 회원사를 위한 협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오늘 총회는 올 한해 동안 우리 협회가 추진할 사업계획을 비롯하여, 일반회계 및 회보지사업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총회에 앞서 전국 시 · 도회장 회의와 이사회에서 면밀히 검토한 바 있으나, 오늘 이 자리에서 업계 발전을 위한 기탄 없는 의견을 나누어주시기 바라며, 대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 속에서 우리 집행부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바쁘신 중에도 총회에 참석하여 주신 대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사업이 일익 번창하시고, 우리 설비건설업이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국민에게 사랑 받는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설비건설협회

제34회 총회(정기) 개최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박종학)는 지난 2월 24일 설비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전국대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4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06회계년도 사업계획 결정의 건과 일반회계 및 회보지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의 결정의 건,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이날 총회에서 박종학 회장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문과 일반건설업을 통합하여 겸업제한을 폐지하려는 제도개선에 대하여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시행 및 설비·전문건설업자 간의 공동도급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설비공사 분리발주 활성화로 원도급 시장 참여를 보장받고, 시공참여자제도 개선 등으로 하도급시장을 보호하는 제도적인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박종학 회장은 "전문건설업자가 원도급으로 시공할 수 있는 소규모 복합공사금액의 상향조정,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 비용의 공사원가 반영, 물가연동제 조정기준 변경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바 있다"면서 "올 한해에도 하도급자 산재발생시 산재 은폐를 강요하도록 하는 PQ신인도 제도를 개선하고, 불법하도급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건설하도급제도 개선, 그리고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자재가격과 노임단가 현실화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종학 회장은 "분리발주공사를 수주한 회원사는 원도급 업체로서의 성숙된 품위를 함양하는 한편 시공관리 능력을 더욱 배양하고, 시공품질 향상과 기술개발에 적극 매진해야 한다"면서 "협회에서는 회원사의 편익 증대를 위해 인터넷 증명발급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정부 위탁업무를 신속 정확하게 수행하여 회원사를 위한 협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시공능력평가제도의 원

활한 수행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개발을 선도함으로써 설비건설업계 발전에 기여한 건설교통부 권영원 사무관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확대, 하도급대금 현금지급 유도, 원·하도급공정거래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설비건설업계 발전에 기여한 공정거래위원회 이경만 사무관 △신기술, 신공법 적용으로 공사품질을 개선하고 하도급대금지급 이행여부를 철저히 감독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는 등 설비건설업계 발전에 기여한 서울고등법원 김남필 사무관 △교육시설공사를 분리발주하고 정확한 공정관리와 엄격한 품질관리로 설비시설물의 품질을 향상시켜 설비건설업계 발전에 기여한 강남교육청 권오태 시설과장 △발전시설공사의 품질향상, 시공관리업무개선을 통하여 조기준공을 달성하게 함으로써 설비건설업계 발전에 기여한 한국남동발전(주) 김형윤 부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설비공사의 신기술 개발 및 성실시공으로 업계발전과 위상제고에 공헌 준제이엔씨(주) 고태식 대표이사 등 17명 회원(표 참조)에게 공로패를 수여하였다.

△ 회의에 앞서 삼건설비(주) 최기원 대표이사가 기계설비협의회에서 제정 선포한 「기계설비인 윤리헌장」을 낭독하고 있다. 「기계설비인 윤리헌장」은 기계설비협의회에서 지난 1997년 7월 18일 제정 선포한 「기계설비인의 윤리강령」을 개정하여 지난 1월 5일 「기계설비협의회 2006년 신년인사회」에서 선포하였다.

■ 감사패 수상자

기관명	직 책	성 명
건설교통부	사무관	권영원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	이경만
서울고등법원	사무관	김남필
강남교육청	시설과장	권오태
한국남동발전(주)	사무관	김형윤

■ 공로패 수상자

구 분	상 호	대표자
서울	준제이엔씨(주)	고태식
	(주)태성종합엔지니어링	최재열
부산	(주)정진설비	김종배
대구	(주)보성설비	강일만
인천	(주)반석기건	임윤철
광주·전남	(주)동양설비	이기준
대전·충남	서동산업(주)	윤기중
울산·경남	(유)한진설비	노성묵
경기	(주)한국엔지니어링	박훈섭
	(주)세명기공	유재완
강원	(주)일진엔지니어링	박영철
충북	성진엔지니어링(주)	문기학
전북	(유)상신설비	안재상
경북	(주)현창산업	김용근
가스협의회	(유)대륙엔지니어링	육종철
플랜트협의회	(주)정진공영	이세순
자동제어협의회	남성기전(주)	최전남

■ 대한설비건설협회, 2006년 사업계획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일반·전문건설업자간의 겸업제한 폐지에 대하여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홍보, 정부계약제도 개정, 하도급법령 개정을 추진하며, 정부 위탁업무를 신속 정확하게 수행하여 회원사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2006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

1. 건설진흥사업

①일반·전문건설업자간의 겸업제한 폐지에 대한 대응

△ 대한설비건설협회 박종학 회장은 제34회 총회(정기)의 날에 설비공사의 신기술 개발 및 성실시공으로 업계발전과 위상제고에 공헌한 회원에게 공로패를 수여하였다.

추진 ②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추진 ③저가하도급방지대책 추진 ④정부계약제도 개정 추진 ⑤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추진 ⑥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 개정 추진

2. 기술진흥사업

①인정기능사경력증 발급 및 관리업무 추진 ②건설기능경기대회 개최 ③설비기술자 기술향상을 위한 산학협력 위탁교육 추진 ④설비자재 가격 현실화 추진 ⑤기계설비부문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개정 보완 ⑥설비관련 시공기준 개정 보완 및 시공품질점검 추진 ⑦건설노무관련법령 제도개선 추진 ⑧기술관련법령 제도개선 및 업종별 협의회 개최 운영

3. 가스진흥사업

①가스관련법령제도 연구 및 개선 ②가스시설시공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불공정행위 개선 추진 ③가스설비관련 표준품셈 및 일위대가표 개정보완 추진 ④가스시공관련 기술정보 수집 및 보급 ⑤가스관련법령 개정 자료집 인쇄 배포 ⑥강습회 개최 ⑦가스설비공사협의회 및 가스시공실무연구회 운영

4. 회원봉사 및 조사사업

①시공능력평가 · 공시 추진 ②건설산업기본법 위반행위 홍보 및 통보 추진 ③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 추진 ④건설업 임금실태조사 ⑤2005년도분 통계년보 발간 ⑥2006년도 전국 회원명부 발간 ⑦회원사 애로사항 및 업무지도 등 기타 회원봉사사업 ⑧회원봉사 관련 소관위원회 운영

5. 정보화사업

①인터넷 증명발급시스템 도입 ②홈페이지 재편성 및 전산관리시스템 유지관리 ③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료 제공 ④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정기적 자료제공 등 대내외 전산정보화 관련 업무

6. 기획관리사업

①협회의 기능활성화 및 위상제고를 위한 장단기 발전계획 수립 ②총회에서 승인된 사업계획과 예산의 효율적 집행으로 사업성 극대화와 예산낭비 억제 ③총회 및 이사회 등 회의 운영 ④설비건설업계의 해외진출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외국의 설비건설관련단체와 국제협력 양해각서 체결 및 상호교류체제 구축 등

7. 홍보사업

①월간 설비건설 발간 배포 ②국내 일간지 및 건설관련전문지 등 언론기관에 협회 활동 상황 및 협회 업무추진상황 홍보 ③설비건설업계 관련 특집기사 기획수립을 통해 보다 충실하고 생동감 있는 "월간 설비건설" 지 발행을 위한 편집위원회 개최

대한설비건설협회 가스설비공사협의회

제33차 회의 개최

대한설비건설협회 가스설비공사협의회(위원장 이효련)는 지난 2월 14일 협회 회의실에서 제33차 회의를 개최하고 △2006년도 가스진흥사업계획 △가스시공진흥사업 추진 현황 △공종별협의회 특별회비 징수제도 폐지 건의에 따른 협의 등 주요업무 계획을 수립하였다.

2006년도 가스진흥사업계획으로는 △가스관련법령제도 연구 및 개선 △가스시설시공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불공정행위 개선 추진 △가스설비관련 표준품셈 및 일위대가표 개정보완 추진 △가스시공관련 기술정보의 수집 및 보급 △가스관련법령 개정 자료집 인쇄 배포 △가스관련법령, 시공감리업무지침 및 검사업무지침에 대한 규정을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강습회 개최 △가스설비공사협의회 및 가스시공실무연구회 운영 등이다.

또한 이날 가스설비공사협의회는 △시공감리수수료 인상에 따른 건의 △도시가스시설공사시 도시가스사업자 부당행위방지 개선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개정 △주차장 상판 위 가스배관 설치규정 완화 △도시가스 시공감리업무 수행지침 개정 등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하였다.

대한설비건설협회 서울시회

제173차 운영위원회 개최

대한설비건설협회 서울시회(회장 강석대)는 지난 2월 24일 협회 회의실에서 제173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총회 개최의 건 △2006회계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 · 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본회 인터넷증명서 발급시스템개발 소요비용 지원의 건 △2006 건설의 날 정부포상대상자 추천의 건을 의결하였다.

한편 이날 서울시회는 업무추진실적사항으로 △2005년도 실적신고 접수현황 △2월 8일 회장단회의 개최 △2월 3일 하도급법 해설 강습회 개최 △2006년도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업무추진 △서울시회 법률 및 노무 자문위원 재위촉 △경원전문대학, 대림대학, 두원공과대학, 수원과학대학, 유한대학 등 수도권 전문대학 설비관련학과에 장학금 수여 △제29회 정기총회 개최 준비 △회원사 신청서류 발급업무 실시 △회원사 업무안내 공문시행 △회원관리업무 등을 보고하였다.

또한 서울시회는 △제29회 정기총회 개최 △2006년도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업무 추진 △설비건설업 최고 경영자를 위한 노무강습회 개최 △재하도급 위반업체 실태조사와 공사실적 삭감 및 시공능력 재평가 등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하였다.

■ 법률 및 노무자문위원 위촉

한편 서울시회는 회원사의 경영편익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법률 및 노무자문위원으로 권진웅 변호사와 신홍식 노무사를 위촉하였다.

권진웅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77년에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수원지방법원 인천지원판사와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신홍식 노무사는 건국대학교를 졸업하고 제4회 공인 노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노무법인 한길'을 운영하면서 서울동부지방 노동사무소, 포스코 그룹, 한국전력 등 다수기업 및 단체 노동자문역을 담당하고 있다.

대한설비건설협회 충북도회

시공품질점검위원회 구성

대한설비건설협회 충북도회(회장 장순경)는 회원사들의 시공건설현장에 대한 품질향상과 견실시공을 유도하기 위한 「시공품질점검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충북도회는 그 동안 기계설비공사의 분리발주를 위하여 관계부처에 공문 요청은 물론 꾸준한 방문과 언론 홍보를 통하여 협조를 요청하고 건의한 결과 매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이제 기계설비공사의 분리발주가 정착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분리발주 수주한 우리 회원사들의 시공품질향상은 물론 기술개발과 성숙된 시공관리능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발주기관에서는 시공관리상의 문제점과 시공품질 저하의 우려,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후관리의 문제점 등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시공품질점검위원회」의 출범은 충북도회에서는 설비건설업계의 자율적인 현장점검을 통하여 시공품질 향상은 물론 업계의 위상을 제고시킴으로써 분리발주에 대한 발주기관의 부정적인 시각을 해소하고 염려를 불식시켜 분리발주공사를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 기계설비공사현장, 시공품질점검 실시

한편 충북도회 시공품질점검위원회(위원장 김성배)는 지난 1월 22일 오련기업(주)의 충북 청원군 소재 「각리초등학교 증축 기계설비공사」 현장에 대해 제1차 시공품질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날 시공품질점검위원회는 부실시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공사현장의 일반사항, 공정관리, 시공관리, 품질관리 등의 상태를 세밀하게 점검하고 시공 상태도 꼼꼼하게 체크함으로써 공사의 품질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현장점검 후 평가회의를 통하여 성실시공으로 타 회원사의 모범이 된 공사현장은 현장점검결과를 분리발주 된 설비공사를 수주한 회원사에게 송부하여 기계설비업계의 업역 확대 및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